

전주시, 뉴올리언스와 문화교류

미국 뉴올리언스 문화담당관 일행, 2박3일간 전주 방문 한옥마을·전주시립국악단·팔복예술공장 등 둘러봐

전주시가 제프의 고향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도시인 뉴올리언스와 문화교류에 나섰다. 시는 미국 뉴올리언스의 문화담당관 일행이 지난 5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고 7일 밝혔다.

뉴올리언스는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문화도시이자 세계적인 재즈스타 루이 암스트롱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도시로, △한과 정산이 서린 음악인 미국의 재즈와 한국의 판소리의 본고장이라는 점 △각 국가를 대표하는 미식도시라는 점 △한옥마을과 프랜차이즈라는 각 역사지구(구도심)를 고스란히 간직했다는 점 △국 제영화제와 음악축제 등 축제의 도시라는 점이 전주와 매우 닮아 있다. 엘레나 해리스 뉴올리언스 문화담당관 일행은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소리인 판소리 등 대한민국 대표 문

화도시인 전주시와의 문화교류 협의 차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박 3일 동안 전주한옥마을 한벽극장에서 진행된 마당창극을 관람하고, 전주시립국악단의 연습실 등을 둘러봤다. 또, 2019 전주세계소리 축제 폐막식에서 음악교류를 위한 행사관람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연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과 대한민국의 문화재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전주팔복예술공장 등을 방문하는 등 전주의 현대와 과거의 모습이 담긴 장소를 둘러봤다. 시는 미국 뉴올리언스의 초청으로 오는 10월 16일부터 23일에 진행되는 미국 뉴올리언스 영화제 참가 및 문화교류 협의를 위해 교류협의를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비



전주시는 미국 뉴올리언스의 문화담당관 일행이 지난 5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지역을 찾았다고 7일 밝혔다.

국의 뉴올리언스는 재즈, 수공예, 영화, 음식으로 잘 알려진 미국 남부 전통문화 대표도시로, 전주와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양 도시간 문화예술교류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의 역량강화, 관광도시로서의 매스투어리즘, 젠트리피케이션 등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한옥마을에서 가을비를 즐기는 방법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가을비가 내린 7일 전주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지검, 올해 '영상녹화제도' 실시율 하위권

민주 박주민 의원, 7월 현재 4.8%에 그쳐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아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 등 위해 범죄 피해자의 경우 장려돼야"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 제도'와 관련, 전주지검의 실시율이 전국 지방검찰청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2019년 7월 현재 4.8%에 그쳤다. 이는 서울중앙지검(1.6%), 수원지검

(3.5%), 서울남부지검(4.5%)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2.4%, 2018년 8.7%로 전주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 방지 수단이 다. 또 참고인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이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영상녹화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 및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나 유소년의 경우 가급적 장려돼야 한다"면서 "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너 진술을 반복할 위험성이 높은 조사 때도 권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소방청장 "소방관 전용보험 개발이 목표... 장애인고용 확대"

정문호 소방청장은 7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용보험을 개발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국가직 전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보상 액수나 범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시도 소방본부에서 가입 중인 소방관 보험료는 최대 4배 차이가 난다.

국회 행안위 국정감서... "의용소방대 국가직화 검토 안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35만4000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소방본부가 8만7000원으로 가장 적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2017년 소방관 전용보험 개발에 나섰지만 보험업계와의 견해 차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도 지난해 11월 소방관 단체 보험료를 국가가 일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소방청이 소방관의 공무원제에 입증과 직업성 질환 연구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문성

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선 "복합치유센터가 설치되면 공무원직 전환 입증 자료 확보와 책임 연구를 진행해 (소방관을)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했다.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시 업무상 재해로 퇴직한 소방관들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공상 장애를 입은 후 치료 기간이 만료돼 할 수 없이 퇴직하는 소방관들이 많다"며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정도로 넓혀 치료(에 집중)하거나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군산해경, 해상교통문화 정착 음주 운항행위 집중 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해상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가을철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7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과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유선과 낚시배 출조가 늘면서 해양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선박 음주운항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17일까지 어민과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18일부터는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시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시의회, 전국체전 전북선수단 격려 방문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과 강동화 부의장이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 경기 현장을 직접 찾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선수단을 방문 격려했다. 박병술 의장은 "선수들이 그동안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갈고 닦은 기량을 부상 없이 맘껏 펼쳐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며 전북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전북선수단은 대회 7일 현재 댄스스포츠, 레슬링, 배드민턴, 수영, 양궁, 유도, 태권도, 자전거, 체조 등 33종목에서 금메달 24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37개 획득하며 종합 순위 6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 까지 7일간 서울시에서 열리며 전북선수단은 육상 등 47개 종목에 1600명의 선수 및 임원이 종합 10위를 목표로 출전했다. /송효철 기자

관광객들과 함께 비비자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가득' 내일부터 12일까지 전주비빔밥축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미식축제인 '2019 전주비빔밥축제'가 시민과 여행객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워진다. 전주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전주비빔밥축제'에서 개막퍼포먼스와 대형비빔밥퍼포먼스 등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로운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7일 밝혔다.

'비빔바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를 슬로건으로 한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비빔밥을 비롯한 글로벌 미식도시 전주의 우수한 음식콘텐츠와 식문화를 기반으로 구성된 6개 분야 4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축제 첫날인 9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 앞 전주천 서로에서 전주비빔밥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3355 우리동네 비빔밥'이 맛깔나게 비벼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행사장 메인에 위치한 대형비빔밥과 전주시 35동 주민들이 준비한 각각각색의 다양한 비빔밥을 행사장을 찾은 5000여명의 국내외 관광객들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축제 마지막날인 오는 12일에도 '대형비빔밥 찍고! 먹고!'가 준비돼 올해 축제는 시작과 끝을 관람객들과 함께 비빔밥을 함께 나눠먹는 행사로 꾸며지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국가와 다양

한 계층, 다양한 지역의 식재료 등 비빔밥이 가진 '화합'의 의미에 부합하는 뜻깊은 행사로, 관람객들이 대형 비빔밥 앞에서 사진도 찍고 시식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비빔밥축제에서는 △다양한 미션 수행 후 얻은 재료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비빔밥을 찾아라 △비빔밥의 3가지 유래에 대한 상황극을 체험하고 전설 속 비빔밥을 맛보는 비빔전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 횟수가 확대돼 더 많은 시민과 여행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축제 메인행사장인 전주한옥마을과 서화동예술마을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어 오면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 등 축제 참여를 통해 비빔밥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준비됐다.

이외에도 올해 비빔밥축제에서는 전국 40여 개 팀이 참여하는 비빔문화공연 버스킹으로 물들다가 펼쳐지고, △비빔전설 △연희단 △각설이페 △기적놀이 등 역동적이면서도 연희적인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됨으로써 먹거리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찬 축제로 만들게 된다.

이에 대해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맛깔난 음식을 맛보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준비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 함께 전주를 맛보고 문화를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나눔·소통의 시민장터... 전주 '야호시장' 12일 첫 선

플리마켓 50팀 등 참여 공연·체험행사 '다채'

전주시가 나눔과 소통의 생활문화축제이자 시민장터인 첫 번째 야호시장을 연다. 시는 오는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수영장 앞 주차장에서 전주에서 활동하는 공동체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플리마켓과 체험교육, 아나바다 장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1회 전주야호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호시장'은 벼룩시장과 프리마켓, 장터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전주의 브랜드 네임이다.

'2019야호시장, 맘껏 웃음꽃이 피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야호시장에는 플리마켓 50팀 △체험교육 9팀 △아나바다3팀이 참여하고, 다양한 공연도 준비돼 나눔과 소통의 시민생활문화 축제의 장을 연출할 예정이다. 먼저 플리마켓에서는 공동체와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도자기와 업사이클링 화분, 친환경 수세미, 퀼트 소품, 악세사리 등 수공예제품과 간편먹거리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체험교육 분야는 △민화그리기 △캘리그래피 체험 △청사초롱·새총·저금통·보석함·손거울·컵받침 만들기 △할로윈 소품 만들기 및 우드 펜사용품 만들기 △한지 생활소품 만들기 △스페이스네딩 네일아트 분장체험 등이 마련되고, 네일가치가 △떡치기 △보드게임 △졸면·김치 만들기 △드론축구 △3D펜 체험 △로봇체험 △VR체험 △이동도서관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이와 함께 이날 야호시장에서는 태권무 공연과 국악공연, 버스킹 공연도 함께 진행돼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사용하지 않은 물품 및 책등을 기부하고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공유만물상, 공유확방'도 함께 진행되며, 행사장을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쉼터가 될 '공유놀이터'도 운영된다. 이날 야호시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며, 시는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공유장바구니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초등돌봄 협의체 구성 첫 회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주지역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해소된다. 이는 전주시가 교육청, 초등돌봄기관, 학부모 대표, 아동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협의회를 가동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7일 전주시청에서 시 돌봄부서 관계자와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초등돌봄기관 종사자, 학부모 대표, 아동관련 학계 전문가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돌봄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돌봄협의회의는 현재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초등 돌봄 사업의 연계 및 역할 조정, 기관 간 정보교류, 사업

연계·협력을 통해 전주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돌봄협의회 구성 후 첫 회의로, 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했다. 또, 참석자들과 함께 돌봄 관련 정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돌봄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시는 참여위원들과 함께 향후 돌봄협의체 운영방향과 전주시가 추진하는 은종일 돌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설치하고 있는 야호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송효철 기자